

창 15:6-17 아브람이 롯을 구하고, 약속받은 땅을 자기 힘으로 차지 하얏은 유혹도 떨친 다음, 하나님이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때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낮아 보입니다.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고, 상속할 자식도 없는 불확실한 미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변화가 생깁니다. 드디어 아브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태 아브람은 그저 하나님께 끌려 가거나, 아님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5 장 들어와 아브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람을 지키고 복주겠다 재확인할 때, 아브람은 불편한 속을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엘리에셀은 모든 집안 일을 책임진, 아브람이 가장 믿는 종입니다. 당시 풍습에 주인 아들이 없으면, 가장 연장자인 종이 상속했습니다. 아브람이 종 엘리에셀을 아꼈지만, 친자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엘리에셀이나 복 주십시오.' 그 말은,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라는 질문도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아브람을 바로 잡습니다. 그걸 아브람이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깁니다.

일부 행동으로 아브람 믿음이 드러났지만, 자기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깁니다. 우리 역시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우리 행동,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는 오직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분이신 걸 믿고,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걸 믿는 겁니다. 올바른 삶이나 행동은 믿음에 따라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현실의 강을 건너기 위해, 끊임없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걸 아브람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쩔니까? 아브람도 자신이 약속의 땅을 결코 차지 못할 것 같고, 어쩔 당장 가진 재산이 전부일지 모른단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브람은 번창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거기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뤄지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아브람이 단지 자기 닮은 아브람
 주니어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이 이뤄지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창 15:6-17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기도)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짧은 말 속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믿었다’는 동사는 지속적
 동작을 뜻합니다. 믿음의 태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작정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믿음도 아닙니다. 아브람은 그게 뭐든, 하나님 약속하신 게 반드시 이뤄질 걸
 믿은 겁니다. 계속 믿은 겁니다. 아브람을 의롭게 한 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람이
 뛰쳐나가 곧장 하나님을 위해 뭘 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건없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게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람도 현실과 약속 사이의 모순에 허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약속을 이루실까, 이미 늙을대로 늙은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우리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과 모순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는 사람이 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셨는데, 나는 이미 나이 많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 양육하면 죄다 떠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 궁금증을 멈춰 침묵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하는 분을 붙들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람이 표적을 구합니다. '보여줘 그럼 믿을께'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 앞에서 겁먹을 수 밖에 없는 기드온이 구한, 그런 표적을 아브람도 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받은 표적은 가슴이 벅차 터질 것같은 엄청난 겁니다. 아브람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는 세레모니는 현대인에게는 아주 낯선 방식입니다. 아브람은 재물로 드리는 3 년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조약의 한 형태였습니다. 몇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는 큰 땅을 지배한 강력한 절대 군주가 작은 땅을 다스리는 왕과 맺는 게 있습니다. 이때 절대 군주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혜택을 내리는 대신, 작은 땅 다스리는 왕은 충성과 복종을 맹세합니다. 또 왕과 신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있는데, 왕은 신하에게 땅을 하사하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과 봉사를 맹세합니다. 아브람과 체결한 언약은 나중 것에 해당됩니다. 7 절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언약 세레모니에는 종종 언약 당사자들이 몸을 둘로 쪼갠 짐승들 사이를 걸어서 지나는 의식이 들어갑니다. 일종의 행위 저주인데, 그런 행동을 통해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들처럼 갈기갈기 찢길 것입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아브람의

언약 체결 세례모니는 좀 이상합니다. 땅을 베푼 왕이 짐승들 앞에 서서 지켜보고, 땅을 하사받은 신하가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17 절 보십시오.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시내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람이 지나지 않고,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방식과 정반대로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 지켜보고, 그 찢긴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불과 연기로 지나십니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언약이 지켜질지 여부가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렸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이 깨진다면, 나는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당신 언약을 지키실 의지를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생생하게 당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그건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깬 아브람의 후손들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실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언약의 저주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철저히 임했고, 대신 그 분을 믿는 죄인들에게는 언약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주 성찬식에 떡을 떼고 잔을 부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 죄로 인해 산산히 부서진 하나님을 받으신 겁니다. 아브람이 바친 희생 제물은, 구약 제사의 제물로 나중에 시내산에서 확립됩니다. 그러나 암소와 암염소의 피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킨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피가 상징한 우리 주님의 피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실제 아브람 자신은 살아서, 그 약속이 이뤄지는 걸 다 보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고대하던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실 걸 희미하나마 알았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너무 열망하지 말라는 경고도 받습니다. 첫번째 언약 내용인 약속의 땅은, 오래동안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그나마 많은 어려움 뒤에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애굽을 섬기며 사백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람은 예언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예언하신 내용은 그대로 이뤄집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나중에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 순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많은 결실을 위해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듯,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나 아브람은 평온히 세상을 떠납니다. 수를 누리는 복은 큼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은 아브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부분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브람이 열망했던 땅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진정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더 찬란한 축복이 무덤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들, 그것은 결코 최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이 왜 이리 더딥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 빨라 후회하는 부모처럼, 당신 약속을 후회하면서 주저해서 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뤄진다는 건 지금 아브람 이웃인 그 땅 백성들에게는 심판일텐데, 16 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도 주변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참으심이 아직 한계에 이르지 않았고,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곧 경험할 겁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건 아브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실제 성경은 섬뜩할 정도로 솔직하게, 아브람의 결점과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아브람은 여호와 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언약의 저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여겨진다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결국 자기 백성을 대신해 온전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참으시는 기간 동안,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 역시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용서와 새 생명을 받습니다. 아브람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듯이, 아브람의 영적 후손들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낮아 보일 그때, 그래서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해야만 할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브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져 그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낮아 보일 그때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표적으로 나타난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 믿으며 남은 믿음의 여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